

## 교회소식

- 당분간 이렇게 영상으로나 함께 예배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배당에 모여 손 맞잡고 인사하고 함께 입을 모아 찬송하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로 된 일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는 비상한 시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간구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예배당엔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찾아보고 모여 교제할 수 없지만 기도와 권면 가운데 서로 더욱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일하고 공부하던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면 그만큼 서로 든든하고 소중해지는 사랑이 단단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웃과 형제를 더욱 마음에 담아서, 주님안에 한 몸 된 교회로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유튜브를 통해 주일예배를 인도합니다. 유튜브의 화면에서 진행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 인도에 따라 혼자서, 혹은 가족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면 속의 목사의 예배와, 혼자서 혹은 가족이 함께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일예배 실시간 송출이 시작되면 유튜브 링크를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은 뉴욕세광교회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정예배에 도움이 되도록 예배 순서와 설교 요약, 토의 제목등을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 새벽기도를 진행합니다. 역시 세광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도움이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담임목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 뉴욕세광교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 헌금은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구별하여 드려 준비하셨다가 우편으로 교회로 보내시면 됩니다. 수표로(check) 보내주십시오.  
주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 교우동정:  
임대영 집사님 어머님 최영자 권사님께서 지난 23일(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향년 91세). 권사님 평생에 목자 되셔서 믿음 소망 사랑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권사님을 아버지의 품으로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남은 우리들의 길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빕니다.

## 섬기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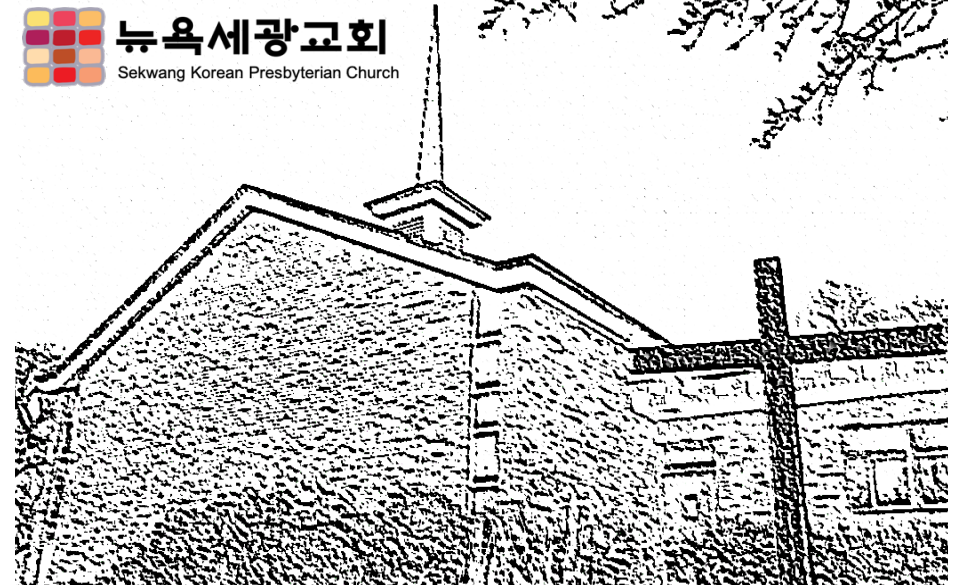
3월 안내: TBD  
다음 주 대표기도: TBD  
이번 주 친교: TBD  
다음 주 친교: TBD

## 기도

“예배와 교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은혜를 범상히 여긴 것을 회개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환자들과 가족들, 의료진, 연구진, 정책 수립과 집행자들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활동 제한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공포와 혐오, 이기심과 차별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제20권 13호

2020년 3월 29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당분간 주일예배(오전 11시)와 매일 새벽기도(화-토 오전 6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뉴욕세광교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 성경공부 및 모임

출애굽기 성경공부	목 8pm / 회의실
	토 7:30am / 회의실
중·고등부 성경공부	금 8pm / 중·고등부실
새가족 모임	주일예배 후 목회자실
구역 모임	구역별

##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민영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 교회 연락처

(914) 874-3606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Homepage: [www.nysekwang.org](http://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 주일 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입례찬송 -----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함께  
 Opening Hymn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예배를 여는 기도 ----- 인도자  
 Opening Prayer  
 신앙고백 ----- 다함께  
 Apostle’s Creed  
 찬송 ----- 87장(통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 다함께  
 Hymn My Lord Has Garments so Wondrous Find  
 헌금 및 감사기도 ----- 인도자  
 Offering Prayer  
 성경봉독 ----- **마태복음 2:13-23** ----- 인도자  
 Word of God Matthew 2:13-23  
 설교 -----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 이민영 목사  
 Sermon  
 찬송 ----- 445장(통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 다함께  
 Hymn Walking in Sunlight all of My Journey  
 축도 -----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 지난 주 주일 말씀

####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마태복음 2:1-12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와 장소에 관한 본문입니다.

1. “헤롯 왕 때에.” 에돔 출신으로 로마 황제의 힘을 얻어 유대의 왕이 된 헤롯은 왕권의 정당성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아내와 자식들도 경쟁자로 여겨 죽인 악한 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묻는 소식에 소동한 것은 당연합니다. 이 아기를 죽이려고 “가만히” 음모를 꾀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헤롯 왕 때에였습니다. 참된 왕,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반가와 하지 않는, 소동하며 음모를 꾸며 그것을 막으려는 악한 세대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를 위해 자기 아내와 아들들도, 한 동네의 모든 아기들도 학살하는 악한 왕의 시대였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공의와 화평이 다스리는 시대입니까? 참된 왕, 하나님의 다스림이 환영받는 시대입니까?

2. “예수께서.” 본문은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소개합니까? 모든 이의 왕이십니다. 이방인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박사들은 어쩌면 바벨론 포로들 중에 남은 자들입니다. 땅 끝까지 흩어진 포로들이 돌아오는 일이 예수님으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 모든 민족 모든 영혼을 땅 끝에서 불러 다스리실 왕이십니다.

하늘의 왕이십니다. 하늘의 별이 그가 나신 곳을 가리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별이 운명을 결정한다고 숭배했지만,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신 일에 사용된 도구였을 뿐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이 왕이 오시면 받으시리라고 예언된 선물들이었습니다(사 60:6, 시 45:8 등). 박사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며” 경배했습니다.

당신은 소동자입니까, 경배자입니까? 당신의 소원을 이뤄줄 능력 때문에 선물을 드립니다, 혹은 왕이신 그분, 마땅히 경배받으실 분을 알아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며 경배합니까?

3. “유대 베들레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헬은 실제로 작은 고을이었습니다(미 5:2-5). 다윗의 고향이라는 것 말고는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작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크기와 아름다움이 아니라 누가 태어났는지, 누가 왕인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도 권력과 부와 명예가 아니라 누가 다스리든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인생은 “가장 작지 아니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악한 세대와 험한 상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왕이요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을 경외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이 기준으로 크고 높아지려 하지 말고 높으신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 “작지 아니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Memo>